LG 미래 사업가 만난 구광모 "꿈 크게 가지고 도전하라"

〈LG 대표이사 회장〉

젊은 인재에 도전·성장 강조

LG 미래사업가 육성 프로그램
사업마인드·스킬교육·멘토링 등
사업가로 성장하는데 경험 제공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대표이사 회장이 미래의 LG 사업가들에게 "꿈을 크게 갖고 도전하고, 더 큰 미래 위한 성장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구광모 LG대표이사 회장은 11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LG인화원에서 LG가 미래사업가로 육성중인 100여명의 젊은 인재를 만나 도전과 성장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올해 2월과 4월 한국과 미국에서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R&D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인 데 이어, 이번에 미래 준비 차원의 젊은 사업가 육성을 위한 교육 현장을 찾았다.

이날 구 회장은 "꿈을 크게 갖고 힘차게 도전하고, 더 큰 미래를 위한 성장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고객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이 LG의 미래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며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올해 잠재력 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해 미래사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력 있는 젊은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LG가 기존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사의 추천을 통해 선임 및 책임급의 인재 100여명을 미래사업가 후보로 선발해 육성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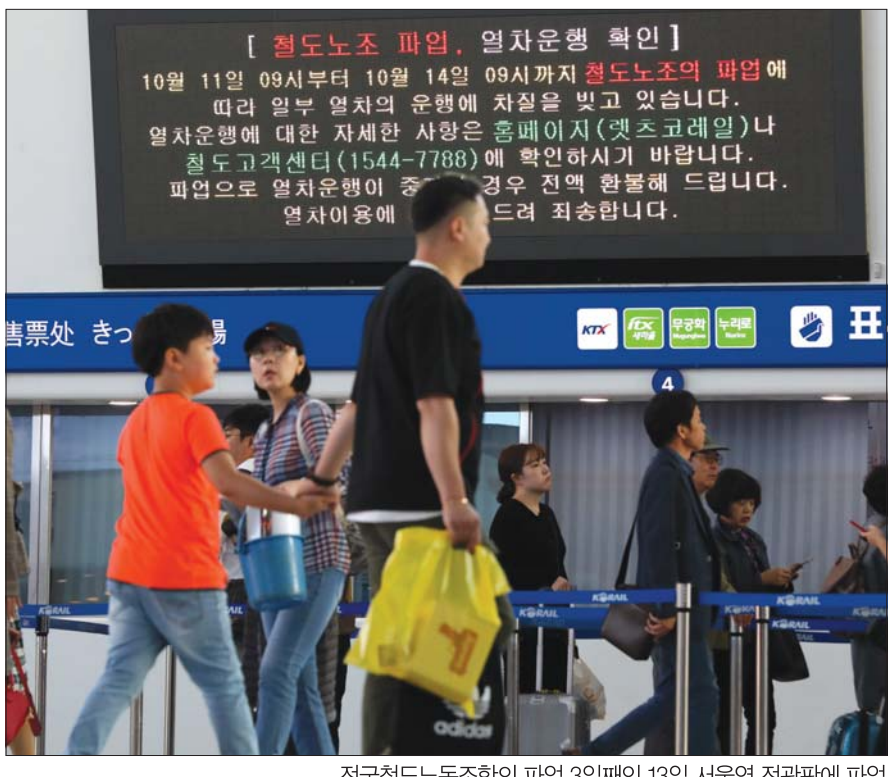
미래사업가 육성 프로그램은 사업가 마인드와 스킬 교육, 선배사업가로부터의 코칭과 멘토링은 물론,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혁신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도전 과제 수행 등 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 기회가 제공된다.

일례로 오프라인 교육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진행 등을 수행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역량 강화와 함께 실전 사업 감각을 익히고 ▲외부 사업가를 초청해 환경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미래 사업가로서 준비해야 할 역량을 구체화 하는 시간도 갖는다.

미래사업가 후보들은 현업에서도 사업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회장은 미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했던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평택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과 대전 LG화학 기술연구원 등 LG의 미래 성장을 위한 R&D 현장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 벤처 캐피탈인 LG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찾았다. LG테크놀로지 벤처스는 현재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AR/VR, 바이오 등 그룹의 미래 준비 차원에서 신기술 및 역량 확보를 위해 13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파업 3일째… 시민 불편 확산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3일째인 13일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3억 이하 서울 전세 아파트, 5년새 75% ↓

매매가 상승으로 전세가 상승
9억 이상 전세아파트 12배 증가

〈2014년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3억 이하 아파트(60~85㎡)	29608	16451	11126	8719	8243	5721
증감폭(전년대비)		-13157	-5325	-2407	-476	-2522
증감률(전년대비)		-44.4	-32.3	-21.6	-5.46	-30.5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9억 이상 아파트 (60~85㎡)	122	236	473	810	1580	705
증감폭(전년대비)		114	242	332	770	-875
증감률(전년대비)		93.4	102.5	37.1	131.9	-55.3

/자료=박홍근 의원실

서울 시내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가 5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분석한 2014년 이후 실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중소형 아파트(60~85㎡) 중 전세가가 3억원 이하로 거래된 가구는 총 8243가구다. 2014년 2만9608가구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2만1365가구나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전세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강서구다. 강서구는 2014년 2626가구에서 지난해 608가구로 2018가구 감소했다. 거래량이 -76.8%다.

이어 노원구가 같은 기간 2764가구에서 954가구로 1810가구 줄었다. 강동구는 이 기간 1838가구에서 지난해 251가구로 86.3%나 줄었다.

강서구의 경우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전세 3억원 이하 거래가 대폭 감소했고, 노원의 경우 강남의 전세가를 감당하기 힘든 수요가 유입, 강동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2014년 이후 빠르게 오르던 전세가가 2017년부터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높아진 가격으로 선택지가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입자로 지낼 수 밖에 없는 서민이 양질의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과 2012년 거래가 각 3건에 불과했던 서울의 9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2014년 122가구에서 지난해 1580가구로 늘었다. 12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구별로 2014년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만 나타나던 거래는 2017년 잠실엘스와 트리마제 등의 입주로 송파구와 성동구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전세입자 세무조사는 2014년 50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1.7배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고액 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액전세입자 조사는 전년보다 줄었다"며 "특정 금액을 넘어가는 고액 전세에 대해선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매매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 3.3억달러… 순 유입세

한은 외환시장 동향
환율 하락·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 기대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축소됐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변화로 등락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기준 1196.2원으로 지난 8월(1121.2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환율 변동성은 전월에 비해 축소됐다. 전일 대비 변동폭은 8월 4.9원에서 지난달 3.7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변동률도 0.41%에서 0.31%로 감소했다.

원·달러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지난 10일 기준 -1.01%로 8월(-1.06%)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통화스왑금리(3년)는 국고채 금리 상승,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0.21%에서 0.34%로 0.13%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억3000만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주식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10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가 지난달 소폭 순유입세로 돌아선 것이다.

채권자금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10억7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유입세다. 반면 주식자금은 7억4000만달러 빠져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됐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로 전월(-19억5000만달러)보다는 유출규모가 축소됐다.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외평채 5년물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달 31bp(1bp=0.01%포인트)로 전월(32bp)보다 소폭 하락했다. CDS는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위험도 낮다는 의미다.

/김희주 기자

"英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낮다"

한은 해외 경제 포커스
존슨 총리 일방적 추진 어려울 것

지난 2일 브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새 협상안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한 가운데 존슨 총리의 일방적인 브렉시트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3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일 브렉시트 새 협상안을 담은 공식 서한을 융커 EU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새 협상은 기존 탈퇴협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안전장치(backstop)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영국이 다소 진일보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해 EU와 영국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브렉시트 시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4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통과된 데다 같은 달 10일 조기총선안이 부결되면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인 브렉시트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영국은 오는 19일까지 EU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재협상 실패 시 영국 총리는 EU 측에 3개월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김희주 기자 hj89@